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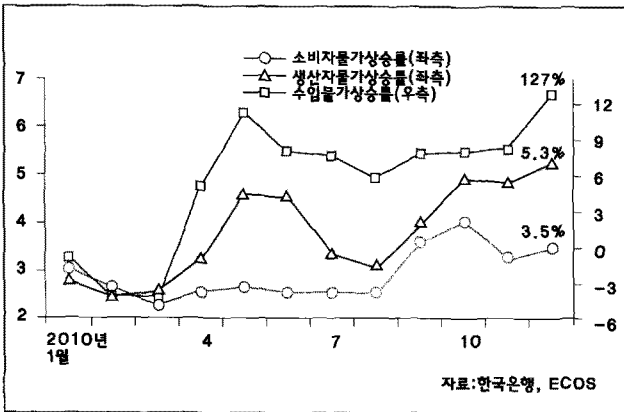


## 인쇄 및 관련업계 원자재가격급등에 경영압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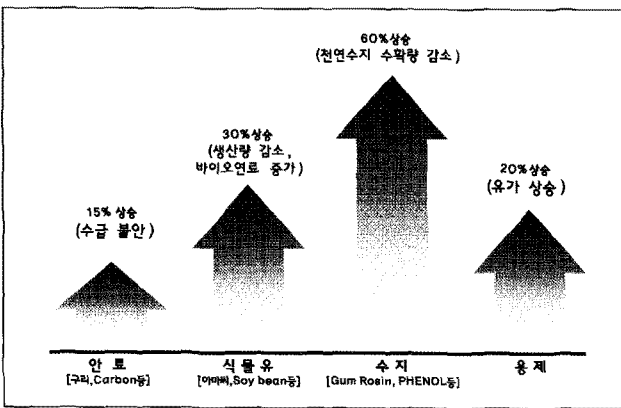
인쇄 및 관련업계를 포함한 범인쇄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화 약세, 내수경기의 부진 등 동시다발적인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쇄 원부자재의 가격이 오르내린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인상 폭이 커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상승된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특히 지난해 인쇄용지 가격이 수차례에 걸쳐 20~30% 인상되면서 인쇄업계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담을 준데 이어 올 들어서는 인쇄용 잉크 및 부재료의 가격인상 조짐이 나타나 인쇄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원부자재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통적인 원인으로서는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과 원부자재를 결제하는 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를 꼽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지난해 1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 수준을 보인데 비해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이후, 5~12.7%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펄프, 잉크, 잉크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압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부자재가격의 인상을 이끌었던 인쇄용지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물량이 부족한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았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선거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 인쇄용지의 가격은 지난해 연말 소폭 내리면서 일선 인쇄사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현재도 인쇄용지의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거나 안정을 찾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접어들면서 무림제지의 일관화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될 예정이어서 공급확대에 따라 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되지만 국내 인쇄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제지업계로서는 가격인하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어서 인쇄용지 가격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림 1〉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림 2〉 인쇄잉크 업계 원료 가격 상승 현황



**잉크업계, 경영압박 커져**

이에 비해 최근 들어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잉크업계의 상황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진데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내수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즉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아니라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격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잉크업계에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원자재인 용제, 송진, 식물유 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최소 15% ~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구리 및 카본 등의 안료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년 대비 1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잉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콩, 아마씨 등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바이오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30%의 상승률을 보였다. 유가의 상승으로 용제의 가격도 20%선 안팎으로 올랐고, 페놀, 검 로진(Gum Rosin) 등의 수지는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무려 6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 적

절한 수준에서 가격이 인상되지 못한다면 2년 연속 적자는 확정된 것과 같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인쇄재료의 주요 취급품목인 화학제품의 해외 원자재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15~17%에 달하는 인상을 통보 받은 상태여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범업계적인 상생방안 마련해야**

사실 인쇄업계로서도 원부자재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인쇄업계가 처한 상황을 시베리아 벌판에 못지 않게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현실이다. 이미 오랫동안 인쇄요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수익률은 민망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 일부 인쇄사들의 경우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또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수익률과 설비 가동률 부문에서 인쇄업이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쇄업계의 주장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또한 인쇄업계는 현재 디지털인쇄, 스마트폰 등 IT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오프셋, 출판, 스크린 등 전통 인쇄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창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생산이 부진하고 수익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업계의 가격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한계상황을 넘어서는 가혹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이 특정업계의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연구와 개발투자에 더욱 전념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쇄업계 및 관련업계가 어떻게 해야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범업계적인 노력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과 원활한 관련업계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G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잉크제조에 필수적인 원부자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